원희룡 장관, 한-몽골 협력관계 공고화

- 몽골 총리 만나 스마트시티 및 철도 등 도시·인프라 협력 논의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(화) 서울 롯데호텔에서 룽상남 스라이 어용에르덴(Luvsannamsrai OYUN-ERDENE) 몽골 총리를 만나 몽골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지원사업 및 철도 인프라 협력 등 양국 간 협력과제를 짚어보고, 파트너십을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.

* (면담 개요) 2.14(화) 17:10~17:40(30분) / 서울 롯데호텔

□ 원 장관은 “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개발·보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교류해 온 주요 협력국”이라며, “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과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리님께 감사드린다”면서 인사말을 전했다.

○ 이어, “몽골과는 도시·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의 교류 및 협력이 오랜 기간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”며, 그 기반으로써 국토부와 몽골 건설도시개발부가 2016년에 체결한 건설, 도시개발, 주택 분야 MOU를 언급하였다.

○ 또한, “양국 간 인프라 분야를 넘어, 문화 및 관광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”면서, “산지가 많고 토지가 넓은 몽골 국가 특성 상 ‘드론 택시’ 등 신 모빌리티 도입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신 산업에 대한 협력의 물꼬를 트었다.

□ 아울러, 어용에르덴 총리는 현재 현 몽골의 물류 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철도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공유하였고,

○ 원 장관은 “우리나라는 현재 몽골 철도 물류발전을 위해 무상 원조를 통한 철도개발전략 수립 지원 중”이라며, “몽골의 인프라 개발 및 발전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는 바람을 밝혔다.

□ 이에, 어용에르덴 총리는 “한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성, 기술력, 인프라 및 교통에 대한 깊은 경험과 이해가 몽골에서 꽃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”고 화답하였다.

2023. 2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